

남한에 남은 중도파, 좌파 인사

○ ○

해방 이후 분단이 진행되면서 많은 중도파, 좌파 인사들이 월북을 감행했는데, 반대로 남한에 남은 중도파, 좌파 인사들도 꽤 있었음.
대표적인 인물이 김철수, 장건상, 김성숙, 정화암, 조동호 등등

조선공산당의 핵심이었던 김철수
아나키즘 독립운동의 핵심이었던 정화암
여운형의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조동호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과 임시정부에서 활약했었던 장건상, 김성숙

한국전쟁 시기에 병사한 조동호, 정계 은퇴한 김철수와 달리, 장건상, 김성숙, 정화암은 사망할 때까지 혁신계 인사로 계속 활동하면서 극우 반공주의에 맞서려 했으나, 잘 되지는 않았음.
이로 인해 장건상, 김성숙 등 많은 혁신계 사람들이 이승만~박정희 때 감옥 생활을 겪어야만 했었고.
이들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될 핵심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독립된 조국에서 모진 박해와 수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

이 외에도 많은 중도파, 좌파 인사들이 이승만~박정희 때 혁신계에서 활동하며 극우 반공주의와 맞섰지만, 정작 전두환이 집권할 때는 유석현 등 여러 혁신계 인사들이 신군부에 부역하는 추태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되더라.
물론 이때 이들만 변절한 것이 아니라, 김철, 고정훈 등 혁신계 정당 사람들도 전두환에 부역하는 추태를 보였지만.